

평화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

한 중 식*

목 차

- I. 머리말
- II. 몸말
- III 맺는 말
- Bibliography

I. 머리말

Dante가 그의 고향 플로렌스에서 유배를 당해,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빠리로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밤늦게 루니지아나에 있는 프렌시스코 수도원 문에 이르렀다. 문을 열어준 수도사가 그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라고 물었다 그때 Dante는 단 한마디로 대답하였다. “평화요”.¹⁾

Dante 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참다운 평화를 간절하게 바란다.²⁾ 세계는 물론, 한반도 주

* 인문대 교수·교목

- 1) James K McCord, "The Peace of God," Harmon D Moore, Ernest A. Ham and Clarence E. Hobgood, edd, And Our Defense Is Sure(Nashville. Abingdon Press, 1964), p44 See also “또 그분의 의지 속에 우리의 평화가 깃든다오 이것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자연이 이루는 모든 것이 그리로 움직여 가는 바다라오”. Dante Alighieri Divina Comedia 단테 韓炯坤역, 神曲(서울.三省出版社, 1978), II, p162, 天國篇, III 85
- 2) Billy Graham, Peace With God(New York. Doubleday and Co, Inc, 1953) 빌리 그래함 지음 정동섭 옮김, 하나님과의 평화(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²⁾, p 6, 키다 켄이치 저, 조용래, 정구은 옮김, 평화의 묵시 성서의 평화사상과 민중신학(천안 한국신학 연구소, 1997), p16

변에도 냉전의 차가운 분위기가 걷히고, 분단된 두 체제 속에도 각각 참된 평화의 구조가 자리 잡혀 안으로는 자유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밖으로는 민주 통일이 이룩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

Walter Schmithals는 이렇게 묻는다“가인이 살인한 이후, 전쟁의 소멸 및 추방은 묘하게도 극단적인 전쟁 준비에 의해 원칙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유럽은 우랄에서부터 대서양에 이르기까지 단 한 세대라도 전쟁을 치루지 않은 적이 있는가”³⁾ 그래서 평화에 관한 어떤 책의 부제는, “우리 시대에 평화는 가능한가?”⁴⁾이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의 세계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1985년 인도 여성들이 작성하여 3월 1일 예배 시간에 전세계적으로 선포한 선언문이다:

정의가 없는 곳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불의한 세계 경제에 의해 불의가 짐증되며, 국제적 콘체른이 부자만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생산하고, 노동자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반면 중간 상인들이 부유해 지며, 공장과 농장에서 여성들의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고, 수많은 여성들이 가난 때문에 몸을 팔며, 형편없는 노임으로 인해 지주와 고리대금 업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곳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결코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 민족들이 서로 불신하고 서로 두려워하는 곳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가? 엄청난 돈과 물자가 곤궁을 완화시키거나 인간의 안녕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군비 경쟁에 투입되고 있다 무기 산업은 전세계에 정치적 긴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소요와 전쟁을 촉진시킨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원자 폭탄의 재앙의 변두리에서 있다 아니다 이 곳에서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⁵⁾

본 논문은, 성서는 평화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고, 평화를 우리의 살아가는 길잡이로 삼았으면 한다.

3) Walter Schmithals, Zum Friedensauftrag der Kirche und der Christen, in *Christliche Ethik und Sicherheitspolitik. Beiträge Zur Friedensdiskussion*, hg v Erwin Wilkens, Frankfurt 1982, p20. Quoted in Klaus Wengst, *Pax Romana Anspruch und Wirklichkeit, Erfahrungen und Wahrnehmungen des Friedens bei Jesus und im Urchristentum*(München Chr Kaiser, 1986) 클라우스 뱅스트 저, 정지련 역, 로마의 평화.주장과 현실, 예수와 초대 그리스도교의 평화 인식과 경험(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4), p306, n.27.

4) David Atkinson, *Peace in Our Time*(Grand Rapids Wm. Eerdmans, 1986) 데이빗 아트킨슨 지음, 한혜경·허천희 옮김, 평화의 신학. 우리 시대에 평화는 가능한가(서울 나눔사, 1992). Cf Wengst, op cit, p 12

5) Ibid, p 306

II. 몸 말

A. 평화의 의미

1. 구약에서의 평화(Shalom)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평화를 말할 때, 전쟁·갈등의 종식을 염두해 두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에서 평화를 뜻하는 낱말인 shalom은 그 쓰임새가 다양했다.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다. Francis Brown, S. R. Driver와 Charles A. Briggs에 따르면, 이를 완전성(Completeness), 건전성(Soundness), 복지(Welfare)와 평화(Peace)의 뜻으로 사용하였다.⁶⁾

a. Shalom은 산술적인 완전을 뜻한다: “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렘 13:19^b);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암 1:5).

b. Shalom은 신체적인 안전, 보장을 뜻한다: “주께서 노하시므로, 나의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몸에 성한 데가 없습니다”(시 38:3);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욥 5:23, 24).

c. Shalom은 행복, 건강, 번영을 뜻하며, 특히 안부를 묻는데 쓰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하고 물었다”(창 43:27);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출 18:7); “그런 다음에, 그 다섯 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삿 18:15).

d. Shalom은 평화, 평온(平穩), 정온(靜穩), 만족을 뜻한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시 4:8); “그러나 너는 오

6)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Oxford Clarendon Press, 1968^{rev}), pp 1022-3

7) 성경 인용은 달리 밝히지 않는 한,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서울:대한성서공회, 1993)임

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창 15:15);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설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사 32:18).

e. Shalom은 평화, 우정을 뜻한다.

(1) 인간관계에서: “...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네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렘 38:22);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라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욥 7).

(2) 하나님과의 평화, 특히 언약관계에서: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사 54 10);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민 25:12);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말 2:5).

f. Shalom은 전쟁으로부터의 평화를 뜻한다:⁸⁾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 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9 15);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 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욥 25.2)⁹⁾.

2. 신약에서의 평화(Eirēnē)

신약에서 평화를 뜻하는 낱말 eirēnē는 히브리어 shalom의 영향을 받은 말이다. 헬라어 사전에서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William F. Arndt와 F. Wilber Gingrich에 따르면,

a. Eirēnē는 평화를 말한다.

(1) 이것은 문자적으로, 무장충돌, 전쟁의 반대 개념이다:¹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밀고 들어오는 자를 만 명으

8) Cf U 두호로 / G 리드게, 손규태 / 김윤옥 옮김, *샬롬*(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4³), p 115

9) Brown et al, op cit., pp 1022-3

10) William F. Arndt and F Wilbe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pp 226-7 Cf Joseph Henry Thayer,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Marshallton The National Found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n d), p 182

로 당해 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 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눅 14:31-2).

이것은 평화를 빼앗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 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걷어 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아 가졌고, 또 그는 큰 칼을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계 6:4)

이것은 또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뜻한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눅 11:21).

이것은 갈등 관계의 사람들이 요청하는 뜻도 된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락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행 12:20).

(2) 이것은 은유적으로, 한 마음 또는 일치 등과 함께 쓰여 평화, 조화의 뜻을 나타낸다:¹¹⁾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마 10:34); “...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히 7:2);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딤후 2:22).

(3) 이것은 소요, 무질서의 반대 개념인 질서를 뜻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4:33).

b. Eirēnē는 히브리어 shalom에 상응하는 복리, 건강을 뜻한다.¹²⁾

(1) 작별 인사할 때: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약 2:16);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눅 7:50).

(2) 새로운 특징적인 발전은 헬라이어 서한체 문안인 ‘은혜’와 히브리 표현이 함께 쓰인 것이다: “...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롬 1:7);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빕니다”(고전 1:3; 고후 1:2; 살후 1:2; 갈 1:3; 엡 1:2 등).

11) Arndt and Gingrich, op cit., p226. Thayer는 이를 개인들 간의 평화로 설명한다.

12) Ibid; Thayer, op. cit Cf 두호로 / 리드게, op cit., p 116

c. 선지자들에 따르면 *eirēnē*가 메시아 왕국의 본질적인 특징인 이상, 기독교 사상에서는 대개 *eirēnē*를 메시아 구원과 동의어로 여긴다:¹³⁾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인이십니다”(행 10:36);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골 3:15);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롬 8.6);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롬 15:13).

d. *Eirēnē*는 특히 메시아의 평화이다:¹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 2:14). 평화(구원)로 인도하는 길이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눅 1:79). 평화, 구원이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되었다:¹⁵⁾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눅 19:38).

e. *Eirēnē*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 사후의 복된 상태를 뜻한다:¹⁶⁾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롬 2:10).

그러므로 평화라는 낱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¹⁷⁾ 긍정적인 언어의 대표적인 것은, 물론 부정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의미로 볼 때, *shalom*이고, 부정적인 언어의 대표적인 것은, 이 말 역시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만, *eirēnē*이다. J. Moltmann은 이를 잘 조화시켜 보다 근본적인 뜻으로 결론 짓는다:

평화는 폭력과 폭력의 위협이 없는 일, 혹은 압제와 공격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하는 당파들을 사회적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높은 차원의 한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¹⁸⁾

13) Arndt and Gingrich, op cit., pp.226-7, Thayer, op cit

14) Ibid

15) Ibid

16) Ibid

17) J MacQuarrie, 조만 역, 평화의 개념(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0), pp.27-29

18) J Moltmann, 전경연 역, 희망의 실험과 정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p 139 Cf. David K. Clark and Robert V Rakestraw, edd, Readings in Christian Ethics(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I, p 160

B. 평화의 내용

1. 평화와 구원

E M Good은 평화를 세속적인 평화와 종교적인 평화로 구분하고, 세속적인 평화는 다시 개인적인 평화와 공동체적인 평화로 세분한다. 또 종교적인 평화는 평화와 의, 평화와 언약, 평화와 축복, 평화와 구원으로 세분하여 설명한다.¹⁹⁾ Douglas J. Harris는 평화를, shalom과 공동체, shalom의 부재, 내적 평화로서의 shalom, shalom과 건강, shalom과 번영, shalom과 전쟁, shalom의 언약, shalom과 구원, 그리고 제물과 shalom으로 설명한다.²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평화는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개념(an iridescent concept)이기는 하지만, 그 핵심 개념은 완전성, 총체성, 통전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평화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체험, 즉, 통전적 삶의 모습이다.²¹⁾

Johs Pedersen은 평화와 구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평화는 조화(harmony)와 행복(happiness)의 영속적인 상태이고, 구원은 그것의 순간적인 획득이다 ...”²²⁾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즉각적인 선물이다. 이것은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불행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의 평화는 구원이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사 52 7);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나 1:15^a).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사 26.3)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이며(시 119.166) 평화를 향유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은 평화의 약속이기 때문이다(시 58:8; 사 26:12).²³⁾ 그러므로 평화는 불가피하게 구속적인 내용을 가진다. 그 메시지는 “평화의 복음”이다(엡 6:15).²⁴⁾ 그리고 구원의 열매는 건강, 번영, 복리와 장수 등이다.²⁵⁾

19) E M Good, “Peace in the OT,” George Arthur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Vol. 3, pp705-6

20) Douglas J Harris, *Shalom. The Biblical Concept of Peace*(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0), pp 13-24

21) Cf 박종화, *평화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1), pp 81-2, 162-6.

22) Johs Pedersen, *Israel*(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332

23) Good, op cit, p706

24) Harris, op cit., p45

2. 평화의 근원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²⁶⁾ 신약에서는 일곱 번이나 “평강(Peace)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롬 15:33; 빌 4:7,9, 살전 5:23; 히 13:20; “그리스도의 평강,” 골 3:15, “평강의 주,” 살후 3:16)²⁷⁾ 그는 인격에 관한 한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본성 안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신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칭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 샬롬”(주님은 우리의 평화, 사 6:24)이다.²⁸⁾

하나님은 그의 인격에 관한 한 ‘평화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지에 있어서도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문자적으로, ‘평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평안’)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렘 29:11)²⁹⁾

이 원리는 “평화의 왕”(the Prince of Peace, 사 9: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다. 그의 출생시 찬사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 2:14)라고 선포하였다. 인간들이 그를 영접하였더라면, 이 땅위에 평화가 이룩되었겠으나, 저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눅 19:14)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인간의 거부에 어떻게 응답하셨나?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눅 12:51)³⁰⁾ 그 날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평화의 도시”)에 입성하여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였다. 하지만 그 도시는 여전히 그를 영접하지 않았

25) Ibid, p 23

26) Ibid, pp 27-8, Good, op cit, p.705, Robert Schuller, The Be (Happy) Attitudes. Eight Positive Attitudes That Can Transform Your Life(Waco Word Books, 1985), p 174

27) Robert Young, Young's Analytical Concordance to the Bible(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2), p 736

28) Warren W Wiersbe, Live Like A King Making the Beattitudes Work in Daily Life(Chicago Moody Press, 1983), p 156

29) Ibid

30) 마태복음 10:34-35에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함 Cf. “그는 이러한 세계를 위해 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단지 거짓 평화에 불과한 이러한 ‘평화’에 칼을 가져다 주었다”(Wengst, op cit, p 140) “칼’은 ‘밑에서부터’ 계급적인 구조를 갖춘 질서 및 소유에 근거한 지배를 해체하는 것과 거짓 평화를 파괴시키는 것을 뜻하는 메타포다”(Ibid, p 141) 두호로 / 리드게, op cit, pp 132-3, Georgia Harkness, Christian Ethics(Nashville Abmgdon Press, 1957), p 200

다. 그래서 그는 이 도시를 향하여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눅 19:42). 이 땅이 평화를 수용하지 못한다.³¹⁾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평화의 창조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엡 2:14), 그는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담을 허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평화를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가므로 평화를 전해 듣게 하셨다(엡 2:15-18).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요 14:27) 라고 말씀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16:33)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이다.³²⁾

이처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고, 성령은 평화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갈 5:22)이다.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거두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렘 16:5).³³⁾

3. 평화의 적

평화의 적은 죄이다.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다.³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지만, 요한복음에서 세 번 씩이나 그로 말미암아 분열이 생겼다고 말한다(요 7:43; 9:16; 10:19) 그가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눅 23:5)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소 내용이었다. 이사야서는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사 32:17)라고 약속하지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마 5:6)이 간혹 불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딤후 3:12)라고 말한다.³⁵⁾

야고보서 4:1-4에 따르면, 이 세상엔 세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31) Wiersbe, op cit., pp 157-8

32) Ibid, p 158.

33) Harris, op cit, p 29

34) Graham, op cit, p 48 See also ch 4, pp 53-70

35) Wiersbe, op, cit, pp 158-9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욕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과 싸우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욕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과 싸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 가지 원수들을 가지신다. 즉, 세상(4절), 욕욕(1절)과 악마(7절)이다.³⁶⁾ 그리고 누구든지 이 원수들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할 때, 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죄 안에서 살면, 죄가 바로 평화의 적이기 때문에 그는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³⁷⁾

4. 평화의 사역자

평화의 사역자는 기독교인이다. 천사들이 “땅위에 평화”를 전할 수는 있지만, 저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서 사역자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몸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딤후 3:3).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롬 5:1). 싸움은 이미 끝났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상 더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우리는 이 이상 더 우리 자신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빌 4:7)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으

36) See Graham, op cit, pp 194-202.

37) Wiersbe, op cit, pp 159-162

로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받고 체험한 우리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골 3 15).³⁸⁾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우리들은 우리 원수에게까지도 평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5:38-48, ‘보복하지 말아라’와 ‘원수를 사랑하여라’는 명령은 강요하는 것(demanding)이고, 또 괴롭게 하는 것(disturbing)이다. 예수께서는 만일 이것이 우리로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고통과 손실까지도 기꺼이 수용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계신 것 같다. 적어도 이것이 바울의 해석이다(롬 12:19-21).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롬 12:18).³⁹⁾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우리들은 평화를 가져 온답시고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 내부의 깊은 곳은 끓어가고 있는데, 단지 겉만 봉합하는 것은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문자적으로, ‘평화, 평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평강하다, 평강하다’)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성경전서 한글개역판은, ‘평강이 없도다’, 램 6 14). 에스겔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담에다가 회칠이나 하여 상황이 안전한 체 하였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문자적으로는, ‘평화가 없는데도’;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평강이 없으나’) 잘 되어간다(문자적으로는, ‘평화가 있다’;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평강이 있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⁴⁰⁾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겔 13.10). 거짓 평화는 공개적인 전쟁보다 더욱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문제가 가려진 것에 불과한데, 마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직(honesty)이지, 위선(hypocrisy)이 아니다.⁴¹⁾

38) Ibid, p 162

39) Ibid, p 164

40) See 閔泳珍, “구약에서 본 살름,” 基督教思想, 247호(1979/1), pp 46-54; “거짓 예언과 거짓 평화,” 基督教思想, 290호(1982/8), pp 48-56

41) Wiersbe, op. cit., p 165.

C. 평화의 관계성

1. 대신적(對神的) 평화

이것은 Billy Graham이 「하나님과 평화」⁴²⁾라고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와의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이다.⁴³⁾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편과 예언서에서, '평화'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종식을 뜻한다⁴⁴⁾

'구속'(Redemption)은 죄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한다. '용서'(Forgiveness)는 갚을 가망이 없는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칭의'(Justification)는 하나님의 심판석(席)에서 무죄방면을 받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의롭다고 칭함 받은 사람을 위해 배려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Adoption)은 소외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자녀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속죄'(Expiation)는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하신 일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해'(Reconciliation)는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화해되었고, 하나님은 화해자이다.⁴⁵⁾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의 성취는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다. 이 받아들임은 바로 믿음의 문제이다.⁴⁶⁾

신약에서 '평화'는 드물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쓰인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에베소서 2:14-17이 그 좋은 예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42) Graham, op cit

43) Wengst, op cit, p 189

44) A M Hunter, Probing the New Testament(Richmond John Knox Press, 1971), p 92.

45) Harris, op cit, p 45

46) Ibid, p 46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서 57:19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여기에 담겨있다. 그럼에도 15절에서 이 낱말 평화(eirēnē)가 쓰였을 때, 이의 반대말 *exithra*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인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적대감인지가 주석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율법이 이방인을 유대인으로부터 갈라놓고 또 유대인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이중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율법에 의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적대감이 야기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셨을 때, 그는 인간들 사이에, 또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이중의 무질서를 파기하셨다. Eirēnē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뜻한다.⁴⁷⁾

만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가 이 구절에서 *eirēnē*가 의미하는 한 부분이라면, 이것이 로마서 5:1(“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에서의 평화의 의미이며, 이 구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뜻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로마서 5:10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가 저들을 화해시켰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⁴⁸⁾ 바울은 하나님 없이 불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로없이 의롭다 인정받게 된 것을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일컫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경건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실을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이 없이 인간은 평화롭게 살 수 없다.⁴⁹⁾

2. 대인적(對人的) 평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비결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이다.⁵⁰⁾ 우리는 에베소서 2:13-18에서 화해의 생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이라는 벽을 허문 것임을 이미 보았다. 에베소서의 적극적인 어조는 하나가 되라는 요청이며, 이것이 중심 주제가 되며, 평화의 개념의 커다란 부분을 이룬다. 기독교인은 겸손과 온유함,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47) Werner Foerster, Eirēnē, etc Gerhard Kittel,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Wm. Eerdmans, 1964), II, p 415

48) Ibid, pp 415-6, 全景淵, “新約에 나타난 平和思想,” 基督教思想, 247호(1979/1), p 60

49) Ibid, C L Mitton, “Peace in the NT,” George Arthur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Vol.3, p 706

50) T B Maston, The Christian, the Church, and Contemporary Problems(Waco. Word Books, 1968), p 130.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엡 4:3) 도전 받는다. 이 개념은 골로새서 3.15에서 강화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⁵¹⁾ “한 몸”으로의 부름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실현해야 할 영적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처신하라며 이렇게 권면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롬 14:17).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평화를 체험하고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힘쓸 임무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롬 14:19)이라고 말한다.⁵²⁾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고린도전서 7:15은 어려운 말이지만 여기서도 동일한 평화의 생각을 담고 있다.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게 될 때,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혼은 안된다고 뜻을 박으면서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고전 7:15^a)라고,⁵³⁾ 이혼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듯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 Foerster는 이에 관해 우리는 ‘구속’(restriction)이 아닌 ‘양식’(良識, reason)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⁵⁴⁾ 바울은 계속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고전 7:15^b)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가진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서 간청한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롬 12:18).⁵⁵⁾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기도, 자비, 고난, 사랑으로 하나됨을 나타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온화함과 외향적인 자질이 있다.⁵⁶⁾ 이와 관련된 성구들은 허다하다.⁵⁷⁾

궁극적인 평화는 평화를 원하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⁵⁸⁾

51) Foerster, op cit, p415, Harris, op cit, p47

52) Foerster, op cit, p416, 전경연, op cit, p61

53) Wilhelm Tell에 나오는 Schiller의 말이 연상된다: “나쁜 이웃이 원치 않는다면, 가장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평화 속에서 살 수 없다” Wengst, op cit, p195

54) Foerster, op cit

55) Cf. Wengst, op cit, pp 194-5

56) Harris, op cit.

57) See 살전 5,13, 고후 13 11, 딤후 2.22, 히 12 14^a등

이것은 평화를 주시는 분인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를 받은 기독교인들의 몫은 “평화의 파괴자들”(Peace-breakers)⁵⁹⁾이 아니고, “평화를 말만 하는 자들”(Peace-talkers)⁶⁰⁾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Peace-makers)⁶¹⁾이 되어야 한다.

3. 대아적(對我的) 평화

이것은 학자들이 내적 평화라고 일컫는 것이다.⁶²⁾ 이 개념이 고전 헬라어의 *eirēnē* 혹은 히브리어의 *shalom*의 특질이 아닌 이상, 이것은 독특하게 기독교적인 의미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약에서까지도 이 개념이 쓰였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어떤 구절들은 이의 뜻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⁶³⁾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롬 8:6). 우리의 실존은 죽음과 생명의 갈등 가운데에 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반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우리를 제대로 된 삶으로 이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생명을 쟁취하여야 한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롬 15:13). 여기서 평화의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을 가르쳐 준다.⁶⁴⁾

내적인 평화는 구원에 대한 평화와의 관계의 또 다른 면이다. 이것의 분명한 설명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에서 볼 수 있다. 그는 “비천하게 살 줄”(how to be abased)도, 또 “풍족하게 살 줄”(how to abound)도 배웠다고 말하며, 그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빌 4:12)고 말한다. 그 비결은 그에게 그리할 힘(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in Christ)⁶⁵⁾ 있는 것이다(빌 4:13). 이것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심오한 내적 평화를 말하고

58) Henri Nouwen, “삶의 중심에 뿌리 내린 ‘평화의 영성,’” 빛과 소금(1999/3), p 105 Contra 전경연, op. cit, p 62

59) William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p.278.

60) Schuller, op cit, pp 177-8

61) Ibid; Hendriksen, op. cit., 한중식, 기독교의 이해(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89^쪽), p.78.

62) Foerster, op cit, p 417 Cf Nouwen, op. cit., pp.101-2.

63) Mitton, op cit, p 706, Foerster, op cit. Cf W. L. Walker, “Peace,”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Grand Rapids: Wm. Eerdmans, 1955), IV, p 2293.

64) 두호로 / 리드게, op cit, pp 125-6

65) William Barclay, The Mind of St. Paul(London Collins, 1958), pp.92-100

있는 것이다.⁶⁶⁾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서(빌 4:6)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지며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는 여러 가지 걱정을 극복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 준다(빌 4:7).⁶⁷⁾ 그리고 이 내적 평화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넓이와, 높이, 깊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편의상 대신적 평화, 대인적 평화, 대야적 평화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우리들이 여기 저기서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경우에서 평화라는 개념은 위의 세가지 개념 모두를 포괄적으로 담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기독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때이다.⁶⁸⁾

Ⅲ. 맺는 말

성서는 평화에 관한 책이다. 성서에는 평화에 관한 언급이 무려 400여번이나 나온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인간들 사이의 평화, 내적인 평화 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서는 평화와 더불어 시작해서 평화와 더불어 끝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이 성서에 나타난 평화를 생각할 때, 그것은 갈등과 전쟁의 부재 그 이상의 뜻을 지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갈등과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 중에 하나님의 임재로써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이다.⁶⁹⁾

성서적인 평화는 긍정적인 힘으로서, 이것에는 선하고 바람직한 모든 것이 내재한다. 즉, 히브리어 shalom이나 헬라어 eirēnē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의 총체이다.⁷⁰⁾ 평화는 창조적인 힘이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창조적인(creative), 혹은 치유적인(curative)⁷¹⁾ 힘을 방출한다. 이러한 힘

66) Harns, op cit, p48-9.

67) 黒崎幸吉, 新約聖書註解(서울. 聖書教材刊行社, 1979), 11, p 123

68) Mitton, op cit

69) Cf M Luther The peace of God is “a peace which is hidden under the persecution and warfare of the cross” Luther’s Works, ed, H C. Oswald(St. Louis. Concordia, 1972), 24.91 Quoted in Clark and Rakestraw, op. cit, p 160, n 8

70) Cf Atkinson, op cit, pp 158-9.

은, 평화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교제로써만 가능하고, 이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뿐이다.⁷²⁾ 왜냐하면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화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열쇠이다.”⁷³⁾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아씨시의 성 프랜시스(St. Francis)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로 삼아야 하겠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⁷⁴⁾

71) Harkness, op cit, p206

72) Graham, op cit, p49, Maston, op cit, p33.

73) 두호로 / 리드게, op. cit, p.136

74) 김영채 엮음, 영원한 만남의 기도(서울. 삼일서적, 1988), p203; Francis of Assisi, “Instrument of Your Peace,” Veronica Zundel, comp, Eerdmans’ Book of Famous Prayers(Grand Rapids. Wm. Eerdmans, 1983), p.30.

BIBLIOGRAPHY

- Arndt, William F. and F. Wilbe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 Atkinson, David. *Peace in Our Time*(Grand Rapids: Wm. Eerdmans, 1986). 데이빗 아트킨슨 지음, 한혜경·허천희 옮김, *평화의 신학: 우리 시대에 평화는 가능한가*(서울: 나눔사, 1992).
- Barclay, William. *The Mind of St. Paul* (London: Collins, 1958).
- Brown, Francis.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Oxford: Clarendon Press, 1968^{rev})
- Clark, David K. and Robert V. Rakestraw, ed., *Readings in Christian Ethics*(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4), I.
- Dante Alighieri, *Divina Comedia*. 단테 지음, 韓炯坤역, *神曲*(서울: 三省出版社, 1978), II.
- Foerster, Werner. eirēnē, etc. Gerhard Kittel,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Wm. Eerdmans, 1964), II.
- Good, E.M. "Peace in the O.T.", George Arthur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Vol. 3.
- Graham, Billy. *Peace with God*(New York: Doubleday and Co, Inc. 1953). 빌리 그래함 지음, 정동섭 옮김, *하나님과의 평화*(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²).
- Harkness, Georgia. *Christian Ethics*(Nashville: Abingdon Press, 1957)
- Harris, Douglas J. *Shalom: The Biblical Concept of Peace*(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0).
- Hendriksen, William.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 Hunter, A.M. *Probing the New Testament*(Richmond: John Knox Press, 1971).
- Macquarrie, J. 조만 역, *평화의 개념*(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0).
- Maston, T.B. *The Christian, the Church, and Contemporary Problems* (Waco: Word Books, 1968).
- McCord, James K. "The Peace of God", Harmon D. Moore, Ernest A. Ham and Clarence E. Hobgood, ed., *And Our Defense Is S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64).
- Mitton, C.L. "Peace in the NT", George Arthur Buttrick,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Vol. 3.
- Moltmann, J. 전경연역, 희망의 실험과 정치(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4).
- Pedersen, Johs. Israel(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 Schuller, Robert. The Be (Happy) Attitudes: Eight Positive Attitudes That Can Transform Your Life(Waco: Word Books, 1985).
- Thayer, Joseph Henry.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The National Found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n.d.).
- Walker, W.L. "Peace",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Grand Rapids. Wm. Eerdmans, 1955), IV.
- Wengst, Klaus. Pax Romana: Anspruch und Wirklichkeit, Erfahrungen und Wahrnehmungen des Friedens bei Jesus und im Urchristentum (München: Chr. Kaiser, 1986). 클라우스 벵스트 저, 정지련 역, 로마의 평화: 주장과 현실, 예수와 초대 그리스도교의 평화 인식과 경험(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4).
- Wiersbe, Warren W. Live Like A King: Making the Beatitudes Work in Daily Life(Chicago: Moody Press, 1983).
- Young, Robert. Young's Analytical Concordance to the Bible(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2).
- Zundel, Veronica. comp., Eerdmans' Book of Famous Prayers(Grand Rapids: Wm. Eerdmans, 1983).
- 김영채 엮음, 영원한 만남의 기도(서울: 삼일서적, 1988).
-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표준 새 번역(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두호로, U. / G. 리드게, 손규태 / 김윤옥 옮김, 샬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³).
- 閔泳珍, "거짓 예언과 거짓 평화," 基督教思想, 290호(1982/8).
- "구약에서 본 샬롬," 基督教思想, 247호(1979/1).
- Nouwen, Henri. "삶의 중심에 뿌리 내린 '평화의 영성'", 빛과 소금 (1999/3).
- 박종화, 평화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1).
- 全景淵, "新約에 나타난 平和思想," 기독교사상, 247호(1979/1).
- 키다 켄이치저, 조용래, 정구은 옮김, 평화의 묵시: 성서의 평화사상과 민중신학(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한중식, 기독교의 이해(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9^{pp}).
- 黒崎幸吉, 新約聖書註解(서울: 聖書教材刊行社, 1979), 11.